

분야 넘나드는 무형유산 융합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초청 공연 '품다' · 제작공연 '탈생'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5~1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의 일환으로 명인 초청 공연 '품다'와, 제작공연 '탈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신선한 융합을 만날 수 있는 명인 초청 공연 '품다'는 5일과 6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 공연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인 이생강(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문정근(전북무형유산 전라삼현승무 보유자), 김선이(공주광역시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가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전통음악과, 춤, 소리의 세계부터 재즈 음악 연주단체인 '재즈(Jazz)시나위'가 연주하는 서양음악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품다'를 연출한 이수현 연출가는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의도에 공감해 준 명인들과 제작진 덕분에 기타 선율에 장삼 자락을 흘날리는 등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공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연출 의도를 전했다.

이어지는 제작공연 '탈생'은 7~10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과 주말 오후 5시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는 최고의 탈을 만들기 위해 장인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재담, 춤, 음악 등이 종합된 음악극이다. 무형유산의 존재를 대를 잇는다는 의미의 '출산', 전승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의미의 '죽음', 그리고 '취직'과 '신입사원' 등의 다양한 현대적 개념에 빗대어 그 가치와 의미를 참신하게 만

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제작공연 '탈생'을 연출한 이주아 연출가는 "사람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무형유산은 인위적인 보호제도를 통해 단절의 위험에서 구출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꼭 전승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이 문화적 자생력을 방해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작품에서는 전승에 대한 부담감 대신, 전통문화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무형유산의 생명성에 주목할 예정"이라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취학아동 이상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go.kr) 또는 전화(02-6677-0023)로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선보이는 두 개의 공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사진가협회 & 부평향토원로작가회 교류전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기념 최북미술관서 10월 8일까지 개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기념 무주사진가협회 & 부평향토원로작가회 정기교류전이 오는 10월 8일까지 최북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는 두 지역 간 교류와 무주반딧불축제 전시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무주사진가협회(회장 이운승)회원 20여 명의 무주관광 사진 작품 25점과 부평향토원로작가회(회장 안정자) 미술과 서예, 서각, 문인화, 사진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무주사진가협회 이운승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딧불이의 군무를 비롯해 덕유산 사

계와 무주구천동 계곡 등 무주의 자연과 명소를 촬영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다"라며 "반딧불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사진을 보고 무주에 반하길, 또다시 오고 싶은 무주라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사진가협회와 8년째 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평향토원로작가회 작가님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도 깊은 감동이 전해질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은 무주사진가협회는 3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매해 정기회원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한편, 지난 2일 열린 개막전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맹갑상 무주문화원 원장 등 내빈과 방문객 등이 참석해 무주사진가협회 & 부평향토원로작가회 정기교류전과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군산문화재단 창립이사회 개최

군산시가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한 (재)군산문화재단 창립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일 실시된 이사회에서 김인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임명, 사업계획 및 예산안, 직원채용 계획, 제규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했다.

최근 정부의 문화정책은 다양화·세분화·복합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분권에 의해 지역 스스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해지는 문화영역을 전담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타당성 용역, 임원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번 창립이사회를 통해 최종 재단설립 준비 과정을 마쳤다. /군산=김관용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예술인학교 권역별 캠퍼스 가동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예술인학교 권역 캠퍼스가 9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권역별 운영단체 최종 선발을 마치고, 9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캠퍼스별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사)풍남문화법인(전주), 변지연문화예술교육연구소(전주), 씨니Plant(진안), 우리영화관들자사회적협동조합(순창), 책마을해리(고창) 등 총 4개 권역 5개 단체다.

특정 예술장르나 실기·기능중심의 학습이 아닌 인문·기획·창작·비평 등 예술현장에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 개발로 캠퍼스별 독자적인 학습과정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설속의 암각화(인문), △문화예술기획의 성공/실패 사례(기획), △무용공연 프로젝트 맵핑(무용), △예술, 진리를 흠뻑다(인문),



△1박2일 예술비평 워크숍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 전문가로는 박종관 (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여균중 영화감독, 허정 철학자를 비롯해 (전)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법무법인 대표, 전·현직 대학교수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정승희 명창, 첫 완창 판소리 무대

국립민속국악원, 9일 김세종제 춘향가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9일 판소리 마당 '소리 판' 무대를 통해 정승희의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무대를 7시간 동안 선보인다.

매일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열리는 판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및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다.

이번 생애 첫 완창 무대의 주인공은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수석으로 재직 중인 정승희 명창으로, 전남의 무형문화재 동편제 춘향가 이수자이자 창극 춘향전, 심청전, 마당을 나온 암탉 등 다수 작품의 주연으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 제21회 KBS국악대경연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2021년 제48회 춘향 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세종-성우항-안애란 명창에서 정승희로 이어지고 있는 김세종제 춘향가는 흥선대원군이 특별히 총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어전에서 펼쳐지는 춘향가는 정제된 선율과 표현, 문학적 우수성으로 인하여 양반들조차 애호하고 향유할 정도로 예술적 깊이를 갖는 최고의 판소리로 꼽혔다.

정승희 명창은 춘향가 한바탕을 오롯이



선보일 생애 첫 번째 완창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러운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같은 소리꾼이 되고 싶은 정승희는 이번 무대에서 공력이 깃든 우아하고 기품있는 소리로 완창 무대를 선보이려 하고 있으며, 박추우 명고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기악단,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인 조용안 명고가 함께한다.

공연 문의는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몽골국립예술단과 협연으로 새로운 감동 선사

국립민속국악원, 8일 합동공연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8일 오후 7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몽골국립예술단과 합동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은 지난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임 몽골 문화부장관이 체결한 '2023-2026 문화교류 시행계획서'의 후속 행사로, 공연의 전반부는 몽골국립예술단의 초원과 대자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멋진 춤과 연주,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후반부에는 한·몽 예술단이 연합하여 다채로운 악기들을 배합하여 관현악을 편성하였으며, '서천이리랑'과 '신모름'을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과 몽골국립예술단의 협연으로 선보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몽골 국립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교류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예술영재 교류, 전통음악의 교육, 연구, 합동공연, 기획, 무대, 연구 등 인적교류 등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속국악원 김중현 원장은 "앞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한·몽간 예술 교



류를 펼쳐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공연을 만들 것"이라며, 공연에 참여할 출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